

에두름의 시학: 엘리자베스 비숍의 전쟁시에 관한 연구*

윤 희 수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비숍의 전쟁시 읽기
- II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엘리자베스 비숍(Elizabeth Bishop, 1911-1979)은 “언제 정치가 좋은 시를 만들어 낸 적이 있는가?”(Millier 301)라고 말할 정도로 정치에 경계심을 드러낸 “비정치적(apolitical) 시인”(Ostricker 7)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1979년 그녀가 사망한 뒤 비숍의 시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특히 1980년대의 비평적 조류를 지배한 여성주의와 신역사주의적 시각에 맞추어 그녀의 시를 구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 놓으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비숍이 일생 동안 두 차례 겪었던 세계대전과 1950년대 이후의 동서냉전의 경험이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되거나 용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녀의 시가 지닌 역사성을 입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숍의 시가 직접적인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지는 않지만, 민간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전쟁의 본질을 성찰하고 전쟁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시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비숍이 어떻게 또 다른 차원의 전쟁시의 지평을 열어 보여주는지를 탐색하게 될 것

* 이 논문은 2007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PS-2007-003).

이다.

트라비사노(Thomas Travisano)는 1979년 비숍의 사망 이후, 그 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그녀의 시가 빠른 속도로 재조명 받아 온 것을 “엘리자베스 비숍 현상”(The Elizabeth Bishop Phenomenon)이라 이름 붙이면서, 이 현상에 작용하는 다섯 가지의 원칙들로 독자의 문화적 관점의 변화, 비평적 패러다임의 변화, 비숍에 관한 새로운 증거의 출현, 비숍 시의 유력한 옹호자들의 주장, 비숍 시의 내적 특성들에 대한 독자들의 동화(assimilation)를 제시한다.¹⁾ 이 논문은 트라비사노의 견해를 근거로 우선 “겸손한 전문가”(Moore 354)나 “유패하며” “매력적인” “절제와 냉정과 균형의 시인”(Jarrell 498-99)이라는 호칭이 대변하듯 시적 기교의 탁월성을 인정받는 시인에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시인으로 새롭게 재평가되도록 만든 독자의 문화적 관점의 변화를 추적하고, 특히 비숍의 전성기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비숍의 시는 예언적 어조가 아닌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 정도로 여겨졌고, 1980년대에 접어들어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조차 “보다 분명하게 사적이고 고백적인 여성 시인들을 선호하여 비숍의 작품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Erkkila 1992: 150). 그러나 1983년에 발표된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의 글 「외부인의 눈: 『엘리자베스 비숍의 시 전집, 1927-1979』」는 비숍의 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성격을 재조명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

이 글에서 리치는 “동성애적 정체성이 지닌 본질적 외부인의 성격과 밀접하게——유일하게는 아니지만——연결된 비숍의 외부인으로서의 경험과, 어떻게 외부인의 시선이 비숍으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외부인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일체감을 느끼거나 느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에 특히 주목한다. 비숍은 언어와 이미지나 시 속에 담긴 그녀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계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 때문에도 읽고, 가치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127)고 말함으로써, 동성애자 비숍의 외부인,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기초한 그녀의 시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해왔던 주변적 위상을

1) Thomas Travisano, "The Elizabeth Bishop Phenomenon," *New Literary History*, 26. 4 (1995): 905-6. 이른바 비숍 현상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 글에 포괄적으로 의존하였음.

대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리치가 비숍을 “종종 뛰어나게 아름답고 감각적인 시 속에서 주변성, 권력과 무력함을 비판적이고 의식적으로 탐색하려 애쓴”(135) 시인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그녀의 시에 대한 다양한 여성주의적 읽기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비숍의 외부인적 시각에 대한 새로워진 관심은 여성주의의 영역을 넘어 그녀의 시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성격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 결과 비숍은 “문화적 텍스트의 결을 찢은” 시인이며 “의식적인 저항인”으로 규정되고, 그녀가 지닌 “이중의 관점”과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입장”이 재해석됨으로써 비숍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시인으로 재평가된다(Travisano 912).

리치의 글을 기폭제로 하여 역사적, 정치적 참고점(reference points)이 부재한 것으로 여겨지던 비숍의 시(Travisano 908)를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한 가지 예로 어카일라(Betsy Erkkila)는 「엘리자베스 비숍, 모더니즘, 그리고 좌파」에서 비평가들이 지나치게 비숍 시의 형식적, 미학적, 개인적, 심리적 차원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녀의 작품에 대한 면밀한 읽기가 문학/정치, 형식주의/사회주의, 모더니즘/좌파, 사적/공적을 포함한 기존의 이분법이 지닌 문제점을 노출시킨다고 보고, 비숍의 작품을 문학적 모더니즘과 미국의 좌파의 관계에 대한 논쟁 한가운데에 놓음으로써 통념적인 이항 대립 구조의 허물기를 시도한다(284-5).

비숍 시의 역사성을 발견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서 비평가들은 1, 2차 세계 대전과 동서 냉전을 경험한 그녀의 전쟁에 대한 시적 반응에 주목한다. 전쟁시가 주로 남성 시인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러한 시도는 외부인, 주변인으로서 비숍의 시를 전쟁시의 범주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는다. 샌드라 배리(Sandra Barry)는 「엘리자베스 비숍과 세계 1차 대전」에서 비숍이 캐나다의 노바 스코시아(Nova Scotia)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체험이 전쟁에 대한 그녀의 관점과 반응을 결정했다고 본다(93-4). 조나단 엘리스(Jonathan Ellis)의 논문 「‘호기심 많은 고양이’: 엘리자베스 비숍과 스페인 내전」은 1935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스페인을 잠시 방문하였던 비숍이 당시 스페인 내전과 정치 상황을 몇몇 작

품들에서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언급하였고, 그 때의 경험이 그녀의 최초의 본격적 전쟁시로 평가받는 「수탉」(“Roosters”)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한다(137-148).

액셀로드(Steven Gould Axelrod)는 「중간세대와 2차 대전: 재털, 새피로, 브룩스, 비숍, 로웰」에서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출생하여 2차 대전을 경험하였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의 문학적 공간을 차지하면서, 언어와 문학의 구조나 양식을 전경화했던 모더니스트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공적인 역사를 앞세웠던 시인들을 “중간세대” 시인이라 지칭하고(2), 이 가운데 비숍을 포함시켜 전쟁, 특히 2차 대전에 대한 그녀의 관점이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그는 「엘리자베스 비숍과 봉쇄 정책」에서 1949년부터 1950년까지 워싱턴 DC의 미 의회 도서관 시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냉전의 담론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비숍의 우회적인 비판적 시각을 면밀하게 분석한다(843-867).

액셀로드 보다 한 발 앞서 비숍의 시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반 냉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가 커밀 로먼(Camille Roman)의 『엘리자베스 비숍의 2차 대전--냉전 관』(2001)이다. 로먼은 마가렛 디키(Margaret Dickie)의 『스타인, 비숍, 그리고 리치: 사랑, 전쟁, 그리고 장소의 시』(1997) 등의 선행 연구에 기대고, 비숍이 수학한 바사 대학(Vassar College)에 보관된 그녀의 원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쟁에 대한 비숍의 관점, 특히 미 의회 도서관 시고문 시절에 배양된 냉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모형을 찾아낸다.

비숍의 전쟁시에 초점을 맞춘 이 논문은 이들의 선행 연구에 힘입고 있지만, 전쟁에 대한 관점을 우회적이고 암시적이며 때로 감추는 듯 은밀하게 드러내는 그녀의 에둘러 말하기 전략을 분석하여 비숍의 시가 동시대의 다른 전쟁시와 어떻게 차별화되는 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 결과 전쟁시에 관한 한 주변인과 외부인으로서의 한 여성 시인의 목소리가 기존의 전쟁시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어떻게 그 범주와 지평을 넓히고 그 성격을 다채롭게 만드는 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비숍의 전쟁시 읽기

비숍의 전쟁시는 통념적인 전쟁시와 성격을 달리한다. 오웬(Wilfred Owen), 재럴(Randall Jarrell), 에버하트(Richard Eberhart) 등의 남성 시인들이 직접 참전 경험을 통해 전쟁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 참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비숍은 우화적 상황을 설정하여 인간의 폭력성을 비판하거나,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민간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전쟁이 일상의 삶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차분하게 드러낸다. 비숍이 전쟁을 취급하는 방식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어서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자칫 간과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그녀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아마딜로」(“The Armadillo”)이다.

1951년부터 16년 동안 비숍이 체류했던 브라질을 배경으로 “이 지역들에서 여전히 존경 받는/ 성자”(a saint/ still honored in these parts)²⁾ 성 요한(St. John)을 기리는 축제 행사를 소재로 삼은 이 시는, 하늘로 날려 보낸 “종이로 만든 방”(paper chambers) 속의 “불법적인”(illegal) 불꽃들이 “산꼭대기에서 부는 하강기류 속에,/ 갑자기 위험하게 변해버려”(in the downdraft from a peak,/ suddenly turning dangerous) 땅위의 동물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 시의 6연부터 9연까지는 위험에 빠진 동물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이탤릭체로 되어 다른 연들과 형태적으로 구분되는 마지막 10연은 전체적 상황을 개괄한다.

지난 밤 큰 것이 또 하나 떨어졌다.
 집 뒤 벼랑에
 불 새알처럼 퍼져버렸다.
 불길이 흘러내렸다.

그 곳에 등지를 튼 올빼미 한 쌍이

2) Elizabeth Bishop, *The Complete Poems 1927-1979*. (New York: Noonday, 1995), p. 103. 이하 CP로 약칭하여 인용문 뒤에 면수만 표기함.

높이 높이 날아올라, 안쪽에는 밝은 분홍색 반점이 든
흑백의 모양으로 선회하다가,
마침내 비명을 지르고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오래된 올빼미의 등지는 분명 타버렸을 것이다.
성급히, 홀몸인 채로,
번쩍이는 아마딜로 한 마리가 그곳을 떠났다,
장밋빛 반점이 찍힌 몸으로,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고서,

그리고는 아기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놀랍게도 귀가 짧고,
한 곳에 고정된 격한 눈빛의,
너무 부드러워!—만질 수 없는 한 줌의 재.

*너무도 예쁜, 꿈같은 흉내!
오 떨어지는 불꽃과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공포, 그리고 약한 갑옷을 두른 주먹 하나를
하늘을 향해 멋모르고 움켜쥔다!*

Last night another big one fell.
It splattered like an egg of fire
against the cliff behind the house.
The flame ran down. We saw the pair

of owls who nest there flying up
and up, their whirling black-and-white
stained bright pink underneath, until
they shrieked up out of sight.

The ancient owls' nest must have burned.
Hastily, all alone,

a glistening armadillo left the scene,
 rose-flecked, head down, tail down,

 and then a baby rabbit jumped out,
 short-eared, to our surprise.
 So soft!—a handful of intangible ash
 with fixed, ignited eyes.

*Too pretty, dreamlike mimicry!
 O falling fire and piercing cry
 and panic, and a weak mailed fist
 clenched ignorant against the sky! (CP 103-4)*

성자를 기려 하늘로 날려버린 불꽃이 벼랑에 떨어져 번지면서 궁지에 빠진 올빼미, 어린 토끼, 아미딜로의 모습을 마지막 연에서 비숍은 “너무도 예쁜, 꿈같은 흉내!”로 개괄한다. 여기서 사용된 “흉내”는 이 동물들의 모습이 인간의 상황을 우화적으로 재연한 것임을 넘기지 암시한다. 날개를 들추면 분홍빛 얼룩을 한 올빼미와, 장미색 반점의 아미딜로, 그리고 만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잿빛 토끼의 “예쁜” 모습들이 공포에 휩싸인 것이 그야말로 “꿈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임에 반해,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의 현실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인간의 모습은 참혹할 뿐이다. 바로 이 “*Too pretty, dreamlike*”라는 표현으로 인해 전쟁 중에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 한층 더 부각되는 것이다. 이 시가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에 반대하여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된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에게 현정되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꽃은 결국 인간을 겨냥한 공중폭격을 가리킨다(Laurens 80-81). 따라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비늘로 덮인, 그렇지만 세찬 불길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아미딜로가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은 전쟁의 폭력성에 공황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흉내”내어 재연하고 있는 것이다.

「아미딜로」가 동물을 등장시켜 전쟁 속에서 인간이 겪는 무력함을 우화적으

로 드러냈듯이, 비숍은 「수탉」(“Roosters”)에서도 수탉을 출연시켜 인간의, 특히 남성의 호전성에 바탕을 둔 “군국주의의 본질적 비속함”³⁾을 들추어낸다. 이 시는 비숍의 말대로 “새벽 네다섯 시에 키 웨스트(Key West)의 뒷마당에서 수탉들이 울어댈 때, 초반부 전체와 군데군데 조금씩을 썼던”(OA 316) 작품으로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인 1941년 4월에 발표되었지만, 유럽에서 발발한 2차 대전의 여파로 그녀가 살던 키 웨스트가 전쟁 준비로 부산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비숍은 그녀의 친구이자 정신적 스승이던 매리언 무어(Marianne Moore)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시 키 웨스트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키 웨스트에서는 아주 높은) 삼층에 깃대가 서있는 작은 발코니와 벤치가 두 개 있어서 거기에 앉아 마을에 온통 야자수들이 흔들리는 모습과 바다를 삼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지만—점점 더 많은 해군 함정들이 들어오고, 거대한 비행기 격납고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 곳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계절일 것 같아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OA 91)

아름다운 항구도시 키 웨스트가 군사기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비숍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이 시를 읽고, 작품의 반복적 리듬과 거친 어법 등을 지적하며 수정을 권유한 매리언 무어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그녀는 이 시의 계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저는 군국주의의 본질적인 비속함을 강조하고 싶기에 “화장실”과 기타 비속한 표현들을 고수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저는 키 웨스트를 떠올렸고, 독일군이 점령하였을 때 하늘에서 바라본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음산한 작은 마을들과, 그 빈곤의 분위기를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황금” 대신에 “양철 수탉”을 고수하기 바라고, “까다로운 잠자리”라는 표현은

3) Elizabeth Bishop, *One Art: Letters*. Ed. Robert Giroux.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1994), p. 96. 이하 OA로 약칭하여 인용문 뒤에 면수만 표기함.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이유로, 보다 고전적인 “THE COCK” 보다는 다소 경멸적인 단어인 “ROOSTERS”를 제목으로 하고 싶습니다. “암회색”(gun-metal)도 반복하길 원합니다. (또한 피카소가 게르니카 그림과 연관시켜 그렸던 사나운 수탉들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OA 96)

스페인 내전과 2차 대전을 염두에 두면서도 키 웨스트를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시는 전쟁이 단지 전쟁터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과 민간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새벽 네 시/ 암회색 푸른 어둠 속에서” 들리는 요란한 수탉의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비숍은 압운의 규칙성을 고려한 삼행연구(tercet)의 형태 속에서 전쟁의 본질을 성찰한다.

새벽 네 시
암회색 푸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첫 수탉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다

암회색 푸른 창문
바로 아래에서,
그리고는 곧바로 메아리가

멀리서 들리고,
이어서 뒤뜰 담장에서 한 번,
이어서 또 한 번, 끄적스레 집요하게,

마치 젖은 성냥처럼
브로콜리 밭에서 굼어대다가
확 타올라, 마을을 온통 사로잡기 시작한다.

At four o'clock
in the gun-metal blue dark

we hear the first crow of the first cock

just below

the gun-metal blue window

and immediately there is an echo

off in the distance,

then one from the backyard fence,

then one, with horrible insistence,

grates like a wet match

from the broccoli patch,

flares, and all over town begins to catch. (*CP* 35)

새벽의 짙은 어둠을 나타내면서 군사적 이미지를 내포하는 “gun-metal,” 전차의 굉음을 상기시키는 “grate,” 불과 대결을 동시에 의미하는 “match,” 작열하는 불꽃의 이미지를 지닌 “flares,” 그리고 사로잡고 점령한다는 의미의 “catch”가 “끔찍스레 집요하게” 점층적으로 전개되면서 수탉의 울음소리는 꼭 두새벽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요란한 나팔소리를 상기시킨다⁴⁾. “잔인한 두 발을 모으고”(brace their cruel feet) “멍한 눈으로 노려보며”(glare/ with stupid eyes) “통제되지 않는, 전통적인 울음소리”(the uncontrolled, traditional cries)(*CP* 35)를 내는 수탉의 모습을 통해 비습은 유사 이래 전쟁을 반복해 온 인간, 특히 남성의 호전성을 부각시킨다.

초록과 황금빛 훈장을 단.

튀어나온 가슴 깊숙이에서,

나머지

4) 로먼은 이 시의 서두가 새벽 네 시 예고 없는 나치의 공습, 곧 전격전(lightening war)으로 1937년 4월 26일 2,50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스페인 게르니카의 참화를 떠올린다고 지적한다(54).

구애받고 멸시당하는
암탉의 삶을 사는
많은 아내들을 명령하고 위협할 계획으로;

생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의미 없는 명령이
마을 전체를 떠돈다.

Deep from protruding chests
in green-gold medals dressed,
planned to command and terrorize the rest,

the many wives
who lead hens' lives
of being courted and despised;

deep from raw throats
a senseless order floats
all over town. (CP 35-36)

“초록과 황금빛 훈장,” “위협,” “의미 없는 명령” 등을 통해 수탉의 남성적 이미지와 파시즘의 군사적 폭력성을 결합시킨 뒤, 비숍은 그 명령과 위협의 대상을 “구애받고 멸시당하는” 암탉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 받거나 민간인의 신분으로 전시의 노역에 동원되고 소모되는 여성들의 삶을 암시한다. 수탉들은 “온갖 진흙탕 골목들로부터/ 출격해서”(making sallies/ from all the muddy alleys) “우리가 달린 핀들”(glass-headed pins)로 점령한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를 하고서”(marking out maps) “여기가 바로 내가 사는 곳”(This is where I live)이라 선언한 뒤, 마침내는 “우리의 침대를/ 흠족하게 바라보면서”(gloat/ over our beds) “일어나! 꿈에서 깨라!”(Get up! Stop dreaming!)고 외치며 개인의 삶마저도 간섭하고 제한한다. 특히 “Get up!

Stop dreaming!”의 명령법은 전쟁이 물리적 삶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식과 상상력마저 제약하여 인간을 낮은 차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붉은 색 벼슬”(The crown of red)이 “온통 투쟁적 혈기로 충만한”(charged with all your fighting blood) “매우 호전적인”(very combative) 수탉들은 둘씩 편을 갈라 싸우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제 공중에서
둘씩 짝을 지어 서로 싸운다.
첫 번째 화염에 휩싸인 깃털이 떨어진다,

그리고 죽음의 충격에조차
도전하는 광란의 영웅주의와 함께
한 마리가 날다가

이미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위로
그의 찢겨나간, 피 묻은 깃털이 날리며 떨어진다;

이제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건
상관이 없다. 그는 회색빛 잿더미로
던져져, 거름 속에 누워있다,

죽은 아내들과 함께,
충혈된 눈을 뜬 채로,
그 동안 그 금속의 깃털들은 산화되며 녹슬어 간다.

Now in mid-air
by twos they fight each other.
Down comes a first flame-feather,

and one is flying,
with raging heroism defying
even the sensation of dying.

And one has fallen,
but still above the town
his torn-out, bloodied feathers drift down;

and what he sung
no matter. He is flung
on the gray ash-heap, lies in dung

with his dead wives
with open, bloody eyes,
while those metallic feathers oxidize. (CP 37)

“화염에 휩싸인” “금속의 깃털들”이 찢겨나가 떨어져 “산화되며 녹슬어 간다”는 이미지들은 공중전을 벌이던 비행기들의 추락을 연상시킨다. “죽음의 충격에조차” “도전하는 광란의 영웅주의”는, 마치 오웬의 「아름답고도 어울린다」 (“Dulce et Decorum”)에서처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아름답고도 어울리는 일이다”(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라는 구호로 맹목적 애국심을 부추겨 “필사적인 영광을 갈망하는”(ardent for some desperate glory)⁵⁾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군국주의와 맞닿아있다. 영웅주의의 말로가 “젯더미”와 “거름 속”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비숍은 전쟁의 비속함과 허무함을 암시한다. 또한 내동댕이쳐진 수탉 곁에 “죽은 아내들”을 나란히 놓아 남성들이 벌인 전쟁에서 이용되고 소모되는 여성과 민간인 사상자를 상기시킴으로써, 이 시는 “2차 대전 동안 한 미국 여성 시인의, 남성적 권력과 군국주의에 대한 격하게 생생한 비판”(Schweik 217)으로 평가받게 된다.

5) Jahan Ramazani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oetry*. 3rd edition. Vol 1. (New York: Norton, 2003), p. 528. 이하 NA로 약칭하여 면수만 표기함.

비숍은 수탉의 이미지를 연장하여, 한 칸의 간격을 더해 앞 연과 확연히 구분한 27연부터 닭 울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우화를 끌어들이고 이전까지의 상황과 병치시킨다. 배신과 회개, 그리고 용서로 집약되는 기독교 신화를 도입함으로써 수탉이 보여주던 호전성을 약화시키고, 파시즘과 군국주의와 전쟁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래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희망”(inescapable hope)(CP 38)을 가져볼 수 있음을 은근히 시사하는 듯하다. 비숍은 격렬했던 싸움을 치른 “수탉들이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다.”(The cocks are now almost inaudible.)고 말하며 이윽고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으로 이 시를 끝맺음한다.

태양이 솟아올라,
“결말을 보기위해” 따라온다,
적, 또는 친구처럼 믿음직하게.

The sun climbs in
following “to see the end,”
faithful as enemy, or friend. (CP 39)

“결말을 보기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선 베드로가 결국 확인한 것은 예언대로 자신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인간적 나약함이다. 베드로에게 “결말”이 신의와 배신(또는 친구와 적), 의지와 나약, 죽음과 부활, 회개와 용서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태양이 바라보게 될 결말 또한 상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열려진 결말이다. 다시 말해 수탉들의 죽음 뒤에 찾아온 적막은 지속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있으며, 매일 매일 충실하게 떠오를 태양만이 그 결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나약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라면 아침에 찾아온 고요함이 다음 날 새벽 네 시 또 한 차례 요란한 수탉의 울음소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2차 대전에 참전 경험이 있는 미국 시인 리처드 에버하트(Richard Eberhart) 역시 「공중폭격의 맹위」(“The Fury of Aerial Bombardment”)에서 인간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뒤, 신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인간은/ 카인처럼, 그러나 다수의 의지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과거의 포악함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he can kill/ As Cain could, but with multitudinous will,/ No farther advanced than in his ancient furies)(NA 741)며 인간의 폭력성을 개탄한 바 있다. 비숍이 「수탉」에서 초반의 격렬한 전쟁의 이미지를 기독교적 우화로 순화시키면서도 결말을 확정하지 않고 열어놓는 이유 역시 인간이 폭력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이다.

「아마딜로」나 「수탉」이 동물을 등장시킨 우화의 형식을 빌려 전쟁의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풍자하는 데 비해, 1955년에 출간된 두 번째 시집 『어느 추운 봄』(*A Cold Spring*)에 수록된 「의회 도서관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의 전경」(“View of the Capitol from the Library of the Congress”)은 전쟁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담담한 풍경 소묘 속에 2차 대전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 즉 냉전의 실상을 은밀하게 담아낸다. 이 시는 비숍이 1949년 9월부터 1년간 워싱턴 DC의 의회도서관 시 고문, 곧 계관 시인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완성한 작품으로(Roman 133), 2차 대전 이후 새롭게 부상한 소련과 공산화에 성공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동서 냉전을 기획할 당시의 정치적인 기류와 이에 대한 비숍의 반응이 미묘한 어조 속에 숨겨져 있다. 이 시는 비숍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사당에 햇빛이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풍경을 일견 담담하게 묘사하는 데서 출발한다.

빛은 왼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며
 둥근 지붕 위를 무겁게, 그리고 거칠게 비친다.
 작은 반달창이 그 빛을 옆으로 밀쳐내고
 사팔눈의 크고 흰 늙은 말 한 마리를 닮은
 그 측면을 멍하니 바라본다.

Moving from left to left, the light
 is heavy on the Dome, and coarse.
 One small lunette turns it aside
 and blankly stares off to the side

like a big white old wall-eyed horse. (CP 69)

“왼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며 의사당의 등근 지붕을 비추는 빛은 2차 대전에 이은 동서냉전의 시기에 눈에 불을 켜고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려는 하원 반미 활동 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HUAC)를 연상시킨다(Roman 136).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프 맥카시(Joseph McCarthy)가 주도하는 위원회의 “거친” 활동에 지배된 미 의회는 전통적인 백인의 지배 권력을 연상시키는 “흰 늙은 말”에 비유된다(Axelrod 851). 또한 비숍은 사시안을 의미하는 “wall-eyed”를 통해 보수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미 의회의 왼쪽만을 바라보는, 즉 공산주의자와 진보적 지식인, 그리고 사회 정화의 차원에서 진행되던 동성애자 색출에 맞추어진 편향적 시각을 암시한다⁶⁾.

시각적 이미지로 미국 정치의 우경화 경향을 넌지시 드러냈던 비숍은 “공군 군악대”의 힘찬 연주를 등장시켜 이차대전의 최대 승전국 미국이 뒤이은 냉전 시대에 호전적인 기세를 강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동쪽 계단에 공군 군악대가
푸른색 공군 제복을 입고서
힘차고 우렁차게 연주를 한다, 그러나--이상하게도--
음악 소리가 잘 전해지지 않는다.

간간히 들리다가, 희미해지고 다음에는 날카롭다가,
이내 잠잠해진다, 그렇지만 미풍도 없다.
그 사이에 거대한 나무들이 서있다.
내 생각엔 분명 나무들이 끼어들어,

6) 미국에서 1947년부터 50년까지 동성애자로 지목된 약 5,000명의 남자가 군대와 공직에서 추방되었는데(Faderman 140), 이는 1950년대에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공직에서 쫓겨난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Cober 8). 1930년대에 좌파적 성향의 『파티전 리뷰』(*Partisan Review*)에 글을 발표하기는 했어도 공산주의 활동의 전력 이 없는 비숍에게 반미 활동 위원회의 동성애자 색출작업은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음악 소리를 잎사귀 속에, 마치 사금처럼,
마침내 잎새 하나하나 마다 축 늘어질 때까지, 잡아 가두고 있다
설 새 없이 작은 깃발들이
축 늘어진 줄무늬들을 공중에 나부끼게 하는데,
군악대의 노력은 거기서 끝난다.

저편 가장자리의 커다란 나무 그늘이
음악 소리에 자리를 내준다.
거기 모인 금관악기들은
광--광 울리고 싶다.

On the east steps the Air Force Band
in uniforms of Air Force blue
is playing hard and loud, but--queer--
the music doesn't quite come through.

It comes in snatches, dim then keen,
then mute, and yet there is no breeze.
The giant trees stand in between.
I think the trees must intervene,

catching the music in their leaves
like gold-dust, till each big leaf sags.
Unceasingly the little flags
feed their limp stripes into the air,
and the band's efforts vanish there.

Great shades, edge over,
give the music room.
The gathered brasses want to go
boom--boom! (CP 69)

의사당 동쪽 계단에서 힘차고 우렁차게 연주되는 군악대의 연주는 “축 늘어진” 성조기의 “줄무늬를 공중에 나부끼게 하는” “작은 것밭들”의 시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부추기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적극적 군사개입을 계획하는 미국의 냉전 정책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비숍은 “boom--boom”으로 표현되어 무기의 폭발음을 연상시키는 군악대의 연주가 그녀가 머물러 있는 의회 도서관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호전적 분위기와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즉 미국의 군사개입을 독려하는 군악대의 연주가 나무들이 “끼어들어”, “이상하게도” 그녀가 머물고 있는 의회 도서관까지 들려오지 않는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비숍은 냉전 분위기에 편승한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가 지적,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현상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⁷⁾. 그녀가 시 고문직에서 물러나 브라질에 체류하던 1954년에 매리언 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의 국무부는. . .명청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며, (미국 대사는) 친 매카시 계열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OA 298)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었지만, 당시 공직자 신분이던, 그리고 동성애자인 비숍에게 침묵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암시적이고 우회적인 시 쓰기만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비판과 저항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비숍 특유의 에둘러 말하기 전략은 로웰에게 “반 아이젠하워시”(anti-Eisenhower poem)라고 스스로 고백한(OA 439) 「트롤로프의 일기로부터」(“From Trollope's Journal”)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는 “1861년 겨울”이라는 부제가 가리키듯이 영국의 소설가 앤소니 트롤로프가 미국의 남북전쟁을 목격하고 쓴 일기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OA 439) 옮겨 적은 일종의 극적 독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로웰의 충고에 따라 비숍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트롤로프의 소리처럼 들리는”(OA 387) 형식을 취하여, 남북전쟁 당시 워싱턴 DC를 관찰하고 묘사하는 트롤로프의 목소리에 기대어 냉전 시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7) 액셀로드르는 이 시가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모티프를 방어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에서 냉전의 이념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려는 것을 봉쇄하고 차단할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Axelrod 2003: 856).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 1961년에 발표된 이 시는 매카시즘의 광기가 지배하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미적인 작품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Dickie 114).

미국의 국부인 워싱턴의 동상과 “그의 양자”(his foster sons)가 된 원주민의 동상이 함께 배열된 워싱턴 DC의 모습, 다시 말해 원주민들이 백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게 된 “슬프고”(sad), 도덕적, 정치적으로 “건전하지 못한”(unhealthy) 역사적 토대 위에 자리 잡은 미국 핵심부의 모습을 비숍은 트롤로프의 시선을 빌려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내 주위에 온통--발자국이 찍히고 경작되지 않은--
 보기 흉한 진흙 속에 가축떼,
 다음 전투가 끝나면 군대를 위한 먹이가 될
 무수한 소떼들이 의아해하며 서 있다:
 다리는 마른 핏빛으로 엉겨 붙은 채,
 빨은 안개를 화관처럼 두르고 있다. 가련하고, 굶주려, 말 없는
 혹은 음매하며 우는 짐승들, 다시는 되새김질 하거나
 뱃속을 채우지 못하리라!

There all around me in the ugly mud
 --hoof-pocked, uncultivated--herds of cattle,
 numberless, wond'ring steers and oxen, stood:
 beef for the Army, after the next battle.
 Their legs were caked the color of dried blood;
 their horns were wreathed with fog. Poor, starving, dumb
 or lowing creatures, never to chew the cud
 or fill their maws again! (CP 132)

트롤로프가 공들여 묘사하는 소떼들은 병사들의 식량으로 소비될 것이지만, 가련하게 굶주리고, “의아해하며” 다리에 마른 피가 엉겨 붙은 채 월계관도 쓰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소모되는 병사들의 처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비숍은

워싱턴의 모습을 묘사하던 형용사 “unhealthy”의 의미를 확장하여, “학질이나 열병”(ague or fever)에 걸린 “현직 대통령”(present President) 링컨, 이마에 탄저병이 걸린 화자 트롤로프, 그를 치료하러 온 “목이 아픈”(with a sore throat) 군의관을 점층적으로 열거한 한 뒤, 군의관의 목소리로 “선생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병사들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로 끝맺음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질병을 미국의 도덕적, 정치적 질병과 결합한다(Roman 2001: 138-9). 이처럼 비숍은 이 시에서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잉태되고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화되며 2차 대전의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동서 냉전에 몰입함으로써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병사들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라는 경고성 진술이 암시하듯이 냉전의 기류로 미국과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예들려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Ⅲ. 나가는 말

비숍의 전쟁시는 통념적인 전쟁시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시를 가운데 오웬의 「전몰한 젊은이를 위한 찬가」(“Anthem for Doomed Youth”), 「아름답고도 어울린다」(“Dulce et Decorum Est”)와 「상이용사」(“Disabled”)는 격렬한 전쟁터의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부조리성과 개인의 의미 없는 희생에 대한 연민에 그 초점을 맞춘다. 재럴의 「원형 포탑 사수의 죽음」(“The Death of the Ball Turret Gunner”)이나 에버하트의 「공중폭격의 맹위」(“The Fury of Aerial Bombardment”) 역시 2차 대전 참전 경험에 기대어 전쟁이 가져오는 개인의 비극적 희생을 다룸으로써 남성 시인들이 쓴 현대 전쟁시의 모형을 마련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숍의 시는 우화를 활용하여 인간의 폭력성을 예들려 비판하거나,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민간인으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전쟁이 일상의 삶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취급한다.

앞서 논의한대로 비숍의 대표적 작품 가운데 하나인 「아마딜로」는 동물들을 등장시켜 전쟁의 공포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불이 붙은 채 하늘로 날아오르

던 풍선들이 땅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키며 순진한 동물들을 등지 밖으로 내모는 상황은, 2차 대전 당시 용단 폭격으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의 “흉내”(mimicry)이기 때문이다. 새벽 네 시에 울려 퍼지는 수탉의 요란한 울음소리로 시작되는 「수탉」 역시 우화적으로 인간의, 특히 남성의 호전성에 바탕을 둔 “군국주의의 본질적 비속함”을 들추어낸다. 본격적인 전쟁 준비로 나날이 분주해지는 키 웨스트를 바라보며 비숍이 느낀 불안감에서 비롯된 이 시는, 전쟁이 전쟁터에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민간 지역의 삶에도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영역을 확대시킨다.

1949년 9월부터 1년간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시 고문으로 일하면서, 동서 냉전의 기류가 마침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워싱턴 DC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비숍은 「의회 도서관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의 전경」에서 편향적인 시각으로 공산주의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마녀 사냥에 몰두하는 미 의회의 모습과 군악대의 요란한 연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차분한 어조로 비판한다. 워싱턴을 배경으로 하는 또 다른 시 「트롤로프의 일기로부터」는 영국의 소설가 트롤로프의 목소리를 내세운 극적 독백의 형식으로 냉전 시대를 지배하는 미국의 군사적 광기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잉태된 일종의 질병의 결과임을 암시한다.

“정치적인 담론에서 이념적 설교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시는 말이 많다. . . . 우리는 어휘들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어휘들 사이에 말해지는 것, 휴지와 침묵 중간에 잠깐 나타나는 것 속에 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과묵함의 엄청난 위력—이것이야말로 엘리자베스의 시가 주는 위대한 교훈이다.”라는 옥타비오 파즈(Octavio Paz)의 예리한 지적처럼(213),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차분한 어조로, 직설적이기 보다는 우회적이고 은근한 방식으로 전쟁의 비속함을 드러내고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비숍의 시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시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인 용 문 헌

- Axelrod, Steven Gould. "Elizabeth Bishop and Containment Policy." *American Literature* 75.4 (2003): 843-67.
- _____. "The Middle Generation and WWII: Jarrell, Shapiro, Brooks, Bishop, Lowell." *War, Literature & the Art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11.1 (1999): 1-41.
- Barry, Sandra. "Elizabeth Bishop and World War I." *War, Literature & the Art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11.1 (1999): 93-110.
- Bishop, Elizabeth. *The Complete Poems 1927-1979*. New York: Noonday, 1995.
- _____. *One Art: Letters*. Ed. Robert Giroux.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1994.
- Corber, Robert.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Hitchcock, Homophobia, and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Gender in Postwar America*. Durham: Duke UP, 1993.
- Dickie, Margaret. *Stein, Bishop, & Rich: Lyrics of Love, War, & Place*.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97.
- Ellis, Jonathan. "A Curious Cat': Elizabeth Bishop and the Spanish Civil War."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27.1/2 (2003): 137-48.
- Erkkila, Betsy. "Elizabeth Bishop, Modernism, and the Left." *American Literary History* 8.2 (1996): 284-310.
- _____. *The Wicked Sisters: Women Poets, Literary History and Discord*. New York: Oxford UP, 1992.
- Faderman, Lillian. *Odd Girls and Twilight Lovers: A History of Lesbian Lif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New York: Penguin, 1991.
- Jarrell, Randall. "The Poet and His Public." *Partisan Review* 13.4 (1946): 488-500.

- Laurens, Penelope. "‘Old Correspondences’: Prosodic Transformations in Elizabeth Bishop." *Elizabeth Bishop and Her Art*. Ed. Lloyd Schwartz and Sybil P. Estees. Ann Arbor: U of Michigan P, 1983.
- Millier, Brett C. *Elizabeth Bishop: Life and the Memory of It*.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3.
- Moore, Marianne. "A Modest Expert." *The Nation*. 28 Sept. 1946: 354.
- Ostricker, Alicia Suskin. *Stealing the Language: The Emergence of Women's Poetry in America*. Boston: Beacon, 1987.
- Paz, Octavio. "Elizabeth Bishop, or the Power of Reticence." *Elizabeth Bishop and Her Art*. Ed. Lloyd Schwartz and Sybil P. Estess. Ann Arbor: U of Michigan P, 1983. 211.
- Ramazani, Jahan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oetry*. 3rd ed. Vol 1. New York: Norton, 2003.
- Rich, Adrienne. "The Eye of the Outsider: Elizabeth Bishop's *Complete Poems, 1927-1979*." *Blood, Bread, and Poetry: Selected Prose 1979-1985*. New York: Norton, 1986. 124-35.
- Roman, Camille. *Elizabeth Bishop's World War II - Cold War View*. New York: Palgrave, 2001.
- _____. "WASHINGTON DC, 1949-1950: Bishop on WWII & the Cold War." *War, Literature & the Art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11.1 (1999): 125-48.
- Schweik, Susan. *A Gulf So Deeply Cut: American Women Poets and the Second World War*. Madison: U of Wisconsin P, 1991.
- Travisano, Thomas. "The Elizabeth Bishop Phenomenon." *New Literary History* 26.4 (1995): 903-30.

Abstract

The Poetics of Indirection: A Study of Elizabeth Bishop's War Poems

Hee-Soo Yoon

Elizabeth Bishop was labelled as an “apolitical poet” before feminism and new historicism in the 1980s put her poetry into concrete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s. The so-called “Elizabeth Bishop Pheomenon,” flourished after her death in 1979, also inspired a renewed attention to war poems of Bishop who had lived through two world wars and Cold War era.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Bishop's war poems to prove how she has opened a new horizon of war poetry beyond those of male combattant poets such as Owen, Jarrell, and Eberhart.

Bishop does not deal with war on the basis of direct experiences of war: rather she applies an indirect way of expressing the misery and predicament human beings suffer in the war. “The Armadillo,” one of her best-known poems, uses a form of fable to show how defenselessly civilians are exposed to the dangers of war. The owls, rabbit, and armadillo in this poem mimic the sufferings of innocent people who could not protect themselves from the violence of air bombing. In “Roosters” Bishop also uses animals to “emphasize the baseness of militarism” propelled by human beings, especially arrogant males. Set on Key West, Florida, the poem blurs the boundary between battlefields and civilian areas to suggest that all are influenced by the terrors of war no matter how far they live away from war zones.

Two poems associated with Bishop's experiences in Washington DC as a

Poetry Consultant in the Library of Congress reveal her uneasy feelings about the US in Cold War era in an indirect and covert way. “View of the Capitol from the Library of Congress” thinly conceals her fear of McCarthy’s witch-hunting and military expansionism represented by the “hard and loud” play of “the Air Force Band.” Using the form of dramatic monologue in “From Trollope’s Journal,” Bishop also covertly criticizes the social and political maladies of the US under President Eisenhower who, as a war hero, is building up the military power of the nation in preparation for the Cold War.

Key Words: Elizabeth Bishop, war poems, World War II, Cold War, indirection

엘리자베스 비숍, 전쟁시, 2차 대전, 냉전, 에두름

논문접수일: 2011. 04. 28

심사완료일: 2011. 05. 21

게재확정일: 2011. 05. 27

이름: 윤희수

소속: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이메일: yoonhs@pknu.ac.kr

